

第13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제13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엄

日時 2022年12月24日(土)9:30～15:15

方法 ZOOM配信

主催:帝塚山大学 奈良教育大学 公州大学校(韓国)

共催:東京学芸大学

後援:奈良県教育委員会 奈良市教育委員会 奈良新聞社

公益財団法人 韓昌祐・哲文化財団

スケジュール

9:30	開会		
9:30- 9:45	開会挨拶	奈良教育大学 帝塚山大学長	宮下 俊也 蓮花 一己
9:45-10:55	基調講演		
	百済・日本・唐における衣冠の埋納と献納	帝塚山大学客員教授	牟田口 章人
10:55-11:05	休憩		
11:05-12:15	研究発表		
	日本列島における終末期古墳への版築工 法の導入とその系譜	東京学芸大学教授	日高 慎
	百済大寺と百済	帝塚山大学教授	清水 昭博
12:15-13:15	昼食		
13:15-13:50	研究発表		
	百済と日本とに共通する如来像の一着衣 形式と金属加飾手法をめぐって	奈良教育大学教授	山岸 公基
13:50-14:00	休憩		
14:00-15:10	研究発表		
	天寿国繡帳と三国時代の韓半島	帝塚山大学大学院院生	徐 玉茜
	瓦からみた百済系氏族建立寺院の諸相 一大和片岡地域を中心に―	帝塚山大学大学院院生	奥田 利伽
15:10	閉会		

일 정 표

9:30	접수		
9:30- 9:45	개회인사	나라교육대학 학장 테즈카야마대학 학장	미야시타 토시아 렌게 가즈미
9:45-10:55	기조 강연		
	백제・일본・당의 의관 매납과 헌납	테즈카야마 대학 객원 교수	무타구치 아키토
10:55-11:05	휴식		
11:05-12:15	연구발표		
	일본 열도의 종말기 고분의 판축 공법 도입과 그 계보	도쿄 학예 대학 교수	히다카 신
	쿠다라노오오데라와 백제	테즈카야마대학 교수	시미즈 아키히로
12:15-13:15	중식		
13:15-13:50	연구발표		
	백제와 일본 여래상의 공통된 착의형식과 금속가공법에 대하여	나라교육대학 교수	야마기시 코우키
13:50-14:00	휴식		
14:00-15:10	연구발표		
	천수국수장과 삼국시대의 한반도 기와로 본 백제계씨족 건립사원의 양상 -야마토 카타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테즈카야마대학 대학원 테즈카야마대학 대학원	서 옥천 오쿠다 키쿠카
15:10	폐회		

第13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奈良教育大学

学長 宮下 俊也

第13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が、3年ぶりに開催されますこと、心より嬉しく思います。

私たちは COVID-19 によって、「人々と交流する」ことの意義や大切さを、あらためて考え、実感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互いの友好を深めることも、互いの文化を尊重することも、そして互いに共通する歴史や文化について学術的に研究を深めることも、「会って語り合う」という交流は、そのための重要な方法です。

また、本シンポジウムは、「日韓両国が長い歴史の中で行ってきた文化交流をそのフィールドにして、特に古代日本と密接な関係にあった百済とその文化に注目して、過去から未来へと繋がる日韓の相互理解と友好的な関係の構築と維持について模索し、再認識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り、「交流について交流によって研究する」ということも特色かと思います。

さて、奈良教育大学はユネスコスクールであり、「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を大学の柱に据え、推進しています。このシンポジウムによって、千数百年にもわたる日韓交流と、その遺産としての百済文化を、研究によって持続発展させることはもとより、その研究知見や研究交流から、未来に向けた日韓の国際交流や、日韓で新しい文化を生み出すことにまで寄与できたら、本学にとっても大変嬉しいことです。

オンラインではありますが、公州大学校、帝塚山大学、東京学芸大学とともに、本シンポジウムが充実した国際交流となり、ポストコロナにおいても、研究と友好親善が末永く続いていく機会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제 13 회 백제 문화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하며

나라 교육 대학
학장 미야시타 토시아

제 13 회 「백제 문화 국제 심포지엄」을 3 년 만에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우선 전합니다.

우리들은 COVID-19 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가치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간 우호를 돈독히 하는 것도, 상호 간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그리고 서로가 공통되는 역사나 문화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교류는 이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심포지엄은 「한일 양국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중에서도 고대 일본과 밀접한 관계이기도 한 백제와 그 문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양국 간의 상호적인 이해를 깨달음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다시 과거의 방식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류를 교류로써 연구한다」라는 마음이 특색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라 교육 대학은 유네스코 스쿨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본 대학의 모토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한일 양국 간의 교류와 그 유산이기도 한 백제 문화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연구에 대한 식견과 연구 교류를 통하여 미래를 향한 한일간의 국제 교류와 한일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본교의 입장에서도 매우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온라인이지만 공주대학교, 테즈카야마대학, 도쿄학예대학 모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알찬 국제 교류의 장이 되길 기원하며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연구와 우호 친선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第13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帝塚山大学
学長 蓮花 一己

2008年、百済の古都公州の地に立地する公州大学校ではじまった「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は、今年で13回を迎えます。本シンポジウムでは、日韓の研究者や大学院生が百済文化に関連した研究成果の発表をおこない、多くの研究成果を蓄積し、日韓両国の交流・親善を進めてきました。

その後、本シンポジウムは毎年、日本と韓国を交互に会場として開催してきました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公州大学校でおこなわれた第12回シンポジウム（2019年12月実施）を最後に、中断を余儀なくされていました。

第13回を迎える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いまだ蔓延す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ため、オンラインという形式ではありますが、実に3年ぶりに開催するシンポジウムとなります。

奈良は百済と深い縁をもつ土地です。百済から伝えられた仏教は、奈良・飛鳥の地を拠点としました。飛鳥に建立された日本最初の寺院、飛鳥寺（明日香村）の建設に際しては、百済から僧や技術者が派遣されたことが伝えられます。

また、帝塚山大学も韓国と学術的に深いつながりがあります。本学附属博物館では日本の古代瓦のルーツである百済をはじめとした韓半島の古瓦約3000点を所蔵し、韓国の様々な研究機関や研究者と共同で、日韓古代瓦の研究を進めています。こうした学術的背景からも、帝塚山大学で本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を、誠に光栄に存じます。

仏教は今からちょうど1470年前の西暦552年に百済から奈良の地に伝えられました（『日本書紀』）。そうした記念的な年に本シンポジウムを奈良で開催できることは、大変意義のあることといえます。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最大の目的は、日韓交流の歴史をたどり、日韓交流の促進に貢献することにあります。本シンポジウムが日韓の研究交流を深化し、国際交流の礎を築く友好親善の場となりますことを祈念いたします。

제 13 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움의 개최에 즈음하여

테즈카야마 대학
학장 렌게 카즈미

2008 년 백제의 고도, 공주에 위치한 공주대에서 시작한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움은 올해로 13 회째가 됩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한일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백제문화에 관련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양국교류와 친선을 다져왔습니다.

그 후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움은 매년, 일본과 한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주대에서 열린 제 12 회를 끝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제 13 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아직까지 만연한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로 3 년만에 개최되는 심포지움입니다.

나라는 백제와 연이 깊은 땅입니다. 백제에서 건너온 불교는, 나라 아스카 지역을 거점으로 했습니다. 아스카에 건립된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나라 아스카무라 소재)의 건립에는 백제에서 온 승려와 기술자가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테즈카야마대학도 한국과 학술적으로 연이 깊습니다. 우리 학교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고대기와 본산지인 백제를 시작으로 하는 한반도의 고대기와 약 3000 점을 소장하며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한일고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배경에서도 테즈카야마대학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레 생각합니다.

불교는 지금부터 정확히 1470 년전인 552 년에 백제에서 나라로 전해졌습니다(일본서기).그러한 기념비적인 해에 이 심포지움을 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깊은 일입니다.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움 최대의 목적은 한일교류를 역사를 찾아서, 양국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심포지움이 한일 연구교류를 두텁게 하여, 국제교류의 초석을 다지는 친선우호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目 次

(基調講演)

百済・日本・唐における衣冠の埋納と献納・	9
牟田口 章人 (帝塚山大学)	

(研究発表)

日本列島における終末期古墳への版築工法の導入とその系譜・	11
日高 慎 (東京学芸大学)	

百済大寺と百済・	14
清水 昭博 (帝塚山大学)	

百済と日本とに共通する如来像の一着衣形式と金属加飾手法をめぐって・	17
山岸 公基 (奈良教育大学)	

天寿国繡帳と三国時代の韓半島・	20
徐 玉茜 (帝塚山大学)	

瓦からみた百済系氏族建立寺院の諸相—大和片岡地域を中心に—	24
奥田 利伽 (帝塚山大学)	

목 차

(기조 강연)	
백제 · 일본 · 당의 의관 매납과 헌납 ·	9
무타구치 아키토 (테즈카야마대학)	
(연구발표)	
일본 열도의 종말기 고분의 판축 공법 도입과 그 계보 ·	11
히다카 신 (도쿄 학예 대학)	
쿠다라노오오데라와 백제 ·	14
시미즈 아키히로 (테즈카야마대학)	
백제와 일본 여래상의 공통된 착의형식과 금속가공법에 대하여 ·	17
야마기시 코우키 (나라교육대학)	
천수국수장과 삼국시대의 한반도 ·	20
서 옥천 (테즈카야마대학)	
기외로 본 백제계씨족 건립사원의 양상	
-야마토 카타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	24
오쿠다 키쿠카 (테즈카야마대학)	

百済・日本・唐における衣冠の埋納と献納

帝塚山大学客員教授

牟田口章人

6～9世紀、仏塔心礎への冠献納

21世紀に入り泗泚期を代表する百済王家発願の仏教寺院が相次ぎ発掘調査され、大きな成果が得られている。2007年には577年に百済王・昌（威徳王）が亡き王子の供養のために建立した王興寺木塔が発掘された。2009年には益山弥勒寺西塔の修復過程で、心礎から宝物類が見つかり、ともに発掘された金板に記された銘文から、639年に武王の王后（佐平沙毛積徳女）が浄財を喜捨し造立した事が判明した。注目されるのは、どちらも塔の心礎に冠帽を埋納していたことで、染織部分は腐朽したが、雲母製や銀製の冠の立飾が見つかったことにより判明した。

最新の研究では6世紀末に建立された奈良県明日香村の法興寺心礎から発掘された大量の雲母が冠帽の立飾であ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

仏に国権の象徴である威信財の衣冠を捧げる例は8世紀の日本でも認められる。即ち752年に営まれた東大寺の大仏開眼法要で聖武太上天皇と孝謙天皇、更には諸臣26人が纏った礼服と礼冠が正倉院に施入され、1242年までは形を残し伝えられていた。

下って唐王朝では874年に法門寺の舍利塔の地宮から懿宗と僖宗が奉納した膨大な宝物類が1986年に発見され、地宮の入り口に置かれた宝物のリスト、即ち衣物帳には歴代皇帝が自ら纏った袈裟をはじめ、幘頭だけでも諸臣のものを合わせ、200余りが施入された、と記されている。

6・7世紀 墓への衣冠の埋納

ところで、6・7世紀の百済では、都だけでなく地方にも薄葬が浸透し、墓の規格が統一化される一方、副葬品が少なくなり、王権から下賜された衣冠と袴帯だけを身に着け埋葬される例が発掘で少なからず明らかになっている。日本では同時期の畿内の墓はことごとく盗掘を受けているが、唯一未盗掘で発見された大阪府の阿武山古墳では被葬者の棺の中に7世紀の第一等の位冠である大織冠があっ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

さらに近年モンゴル国で発掘された唐の羈縻政策により唐式に厚葬された異民族の諸王の墓からも唐の皇帝から下賜された冠が発掘されている。

本講演は東アジアに共通する衣冠の墓への埋納と、仏塔への献納の思想的背景を探ろう、というものである。

백제 · 일본 · 당의 의관 매납과 헌납

테즈카야마 대학 객원 교수

무타구치 아키토

6~9 세기 불탑 심초의 의관 헌납

21 세기에 들어 사비기(泗沘期)를 대표하는 백제 왕가가 발원한 불교 사원이 연이어 발굴 조사되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2007 년에는 577 년 백제왕 · 창(昌, 威德王)이 죽은 왕자의 공양을 위하여 건립한 왕흥사(王興寺) 목탑이 발굴되었다. 2009 년에는 익산(益山) 미륵사(彌勒寺) 서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심초(心礎)로부터 보물류(寶物類)가 발견되어 그와 함께 발굴된 금판(金版)에 쓰인 명문(銘文)을 통해 639 년에 무왕(武王)의 왕후(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정재(淨財)를 희사(喜捨)하여 건립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주목할 것은 모든 탑의 심초에 관모(冠帽)를 매장하였다는 것이며, 염색된 부분이 부패되었으나 운모제(雲母製)와 은제(銀製)로 된 의관 입식(衣冠立飾)을 발견된 것으로 인해 판명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6 세기 말에 건립된 나라현 아스카무라(奈良縣明日香村)의 호코지(法興寺) 심초에서 발굴된 많은 양의 운모가 관모 입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부처에게 국가 권력의 상징인 위신재(威信財) 의관을 바치는 사례는 8 세기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즉, 752 년에 조영된 토다이지(東大寺)의 대불개안법요(大佛開眼法要)에서 쇼무다이조텐노(聖武太上天皇, 701~756, 재위 724~749)와 코우켄텐노(孝謙天皇, 718~770, 재위 749~758), 또한 각 신료 26 인이 입었던 예복과 예관이 쇼소인(正倉院)에 헌상되어 1242 년까지 그 형태가 보존되어 전해졌었다.

이후 당 왕조에서는 874 년에 법문사(法門寺) 사리탑의 지궁(地宮)에서 의종(懿宗, 833~873, 재위 859~873)과 희종(僖宗, 862~888, 재위 873~888)이 봉납한 방대한 보물류가 1986 년에 발견되어 지궁 입구에 놓인 보물 리스트, 즉 의물장(衣物帳)에는 역대 황제가 직접 걸친 가사(袈裟)를 시작으로 복두(幘頭)만으로도 각 신료의 것을 합치면 200 여건이 헌상되었다고 기록되었다.

6·7 세기 무덤의 의관 매납

그런데 6·7 세기 백제에서는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박장(薄葬)이 침투되어 무덤의 규모가 통일되었다. 한편, 부장품의 수는 줄어 왕권에게 하사받은 의관과 허리띠만을 몸에 입혀 매장하는 사례가 발굴을 통해 적지 않게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시기에 조영된 키나이(畿内) 무덤은 거의 도굴당하였으나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오사카부 아부야마 고분(大阪府阿武山古墳)을 통해 피장자의 관 속에서 7 세기 제 1 등 위관(位冠)인 타이쑤칸(大織冠)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몽골국에서 당의 기미 정책(羈縻政策)에 의해 후장(厚葬)된 이민족 각 왕들의 무덤이 발굴되어 이곳에서도 당의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의관이 발굴되고 있다.

본 강연은 동아시아에 공통되는 의관을 무덤 속에 매납하는 것과 불탑 안에 헌납하는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日本列島における終末期古墳への版築工法の導入とその系譜

東京学芸大学

日高 慎

日本列島の古墳には、周知のように韓半島の古墳との直接的、間接的な関係が存在する。日本列島の横穴式石室の導入には百済の横穴式石室の影響がみてとれるし、須恵器生産の開始には加耶や百済の陶質土器の影響がある。また、栄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をはじめとして、羅州地域を中心に分布する埴輪の存在など、双方向の関係が存在した。

私は、2014 年～2016 年度まで栃木県壬生町車塚古墳という下野地域の 7 世紀代首長墓の発掘調査に関わってきた。壬生町、東京学芸大学、茨城大学の共同調査である。その過程で、凝灰岩切石の横穴式石室周辺で黒色土とローム土を互層に積んだ版築の痕跡を確認した。版築は、横穴式石室の下部のみならず、側壁の外側においても確認された（君島ほか 2022）。

日本列島における版築工法の導入は、蘇我馬子により推古 4 年(596)に建立された飛鳥寺であり、日本列島で最初期に作られた寺院に堀込地業と版築工法が用いられている。古墳で最もさかのぼる可能性があるのが奈良県明日香村石舞台古墳の堤で、確実な例では同村岩屋山古墳があげられる（一瀬 2005）。岩屋山古墳の築造以降、奈良県明日香村牽牛子塚古墳・同村中尾山古墳・同村高松塚古墳など多くの版築工法を採用した終末期古墳が見られるようになる。岩屋山古墳の築造年代については、7 世紀初頭あるいは 7 世紀中葉～第 3 四半期などと諸説があるが、私自身は、白石太一郎氏の述べるように（白石 2018）、7 世紀中葉でよいと考えている。

奈良県橿原市植山古墳は、推古天皇と竹田皇子の最初の合葬墓と考えられるが（白石前掲）、東石室の両側や北側の墳丘断ち割り調査から、盛土は薄い土層ではあるものの版築ではなさそうである（石坂ほか 2014）。植山古墳の南東に位置する橿原市菖蒲池古墳では、墳丘構築に版築が認められている（松井・石坂 2015）。菖蒲池古墳は 7 世紀中葉の築造と考えられるから、版築工法の古墳への導入時期は 7 世紀中葉とするのが良いように思われる。

関東地域で版築工法を採用している古墳は 20 例以上あるが、多くの古墳が堀込地業をした上で、版築をおこなっている。版築工法そのものの導入が堀込地業と共にもたらされた可能性があり、まさに寺院建築との関わりを考えるべきである。東北地域において近年確認された終末期古墳の福島県白河市谷地久保古墳や野地久保古墳などでも、堀込地業と版築が確認されている（鈴木 2005・2010）。関東地域の終末期古墳の代表例ともいえる千葉県栄町岩屋古墳（仲村ほか 2017）あるいは千葉県山武市駄ノ塚古墳（白石ほか 1996）では版築工法を採用していない。駄ノ塚古墳は出土した須恵器が TK209 型式期であり、7 世紀初頭の築造と考えられる。つまり、終末期古墳のなかで、版築の有無が年代差として理解できる可能性がある。

以上のように、日本列島において畿内と関東ではほぼ同時期に古墳築造に版築工法が導入されたようである。それぞれの地域の首長墓で、巨大な切石の横穴式石室の導入に際して寺院建築の版築工法が古墳に採用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

近年、韓国全羅北道益山市双陵で版築工法が確認された（李文炯 2019）。益山双陵は、武王と妻・善花姫の墓と考えられているが、武王は 641 年に死去したといわれるから、7 世紀中葉に埋葬されたと考えられる。これまでの調査で、韓半島で版築工法が確認された古墳は益山双陵の他に可能性があるもの数例があるのみである（李東奎 2021）。もちろん、今後の他地域を含めた調査成果を待たないといけないが、寺院建築が百済から日本列島に伝えられ、石室石材に応用される切石技術が伝えられる際に、古墳築造に版築工法を導入することも伝えら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その土木技術は、いち早く日本列島の各地の首長墓築造に際して伝えられた。今後は、各地の初期寺院の建立、各地の切石の横穴式石室の成立時期、終末期古墳への版築の導入などを、日本列島全域で改め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일본 열도의 종말기 고분의 판축 공법 도입과 그 계보

도쿄 학예 대학
히다카 신

일본 열도의 고분에는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고분과의 직접적, 간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일본 열도에서 횡혈식석실(橫穴式石室)을 도입한 것에는 백제 횡혈식석실의 영향이 보이며 스에키(須惠器) 생산의 시작은 가야와 백제 도질토기(陶質土器)의 영향이 있다. 또한 영산강(榮山江) 유역에 있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을 시작으로 나주(羅州)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나니와(埴輪)의 존재 등으로 보아 쌍방향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발표자는 2014~2016 년도까지 토치기현 미부마치 쿠루마즈카 고분(栃木縣壬生町車塚古墳)

으로 불리는 시모즈케 지역(下野地域)의 7 세기대 수장묘(首長墓)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다. 미부마치(壬生町), 도쿄 학예 대학(東京學藝大學), 이바라키 대학(茨城大學)의 공동 조사이다. 그 과정에서 응회암 절석(凝灰岩切石)으로 된 횡혈식석실 주변에서 흑색토(黑色土)와 화산회토층인 황색토(黃色土)를 번갈아 쌓은 판축(版築) 흔적을 확인하였다. 판축은 횡혈식석실 하부뿐만 아니라 측면 벽 외벽에서도 발견되었다(키미지마 외 2022).

일본 열도에서의 판축 공법의 도입은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 ?~626)에 의해 스이코 4 년(596 년)에 건립된 아스카데라(飛鳥寺)로 일본 열도에서 초기에 창건된 사원에 굴착지업(掘込地業)과 판축 공법을 사용하였다. 고분에서도 가장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나라현 아스카무라 이시부타이 고분(奈良縣明日香村石舞臺古墳)의 제방으로, 확실한 사례로는 같은 지역 이와야야마 고분(岩屋山古墳)을 들 수 있다(이치노세 2005). 이와야야마 고분의 축조 이후, 나라현 아스카무라 켄고시즈카 고분(奈良縣明日香村牽牛子塚古墳), 같은 지역의 나카오야마 고분(中尾山古墳), 타카마츠즈카 고분(高松塚古墳) 등 판축 공법을 채용한 다수의 종말기 고분을 볼 수 있다. 이와야야마 고분의 축조 연도에 대해서는 7 세기 초 또는 7 세기 중엽에서 제 3 사분기 등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발표자 본인은 시라이시 타이치로(白石太一郎)씨가 주장하는 것 처럼(시라이시 2018) 7 세기 중엽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라현 카시하라시 우에야마 고분(奈良縣橿原市植山古墳)은 스이코텐노(推古天皇, 554~628, 재위 593~628)와 타케다노미코(竹田皇子, 생물년미상)가 묻힌 최초의 합장묘로 생각되나(시라이시 전술), 동쪽 석실의 양측과 북쪽 측면의 분구(墳丘)가 접합된 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토(盛土)는 얇은 토층이나 판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시자카 외 2014). 우에야마 고분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카시하라시 쇼분이케 고분(橿原市菖蒲池古墳)에는 분구 구축에 판축이 확인되었다(마즈이, 이시자카 2015). 쇼분이케 고분은 7 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판축 공법이 고분에 도입된 시기는 7 세기 중엽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칸토 지역(關東地域)에서 판축 공법을 채용한 고분은 20 여건 이상 있으나 다수의 고분은 굴착지업을 한 뒤에 판축을 실시하였다. 판축 공법 그 자체로의 도입이 굴착지업과 함께 전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땅히 사원 건축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토호쿠 지역(東北地域)에는 최근 확인된 종말기 고분인 후쿠이현 시라카와시 야치쿠보 고분(福島縣白河市谷地久保古墳)과 노지쿠보 고분(野地久保古墳) 등에서 굴착지업과 판축이 확인되었다(스즈키 2005・2010). 칸토 지역에서의 종말기 고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치바현 사카에마치 이와야 고분(千葉縣栄町岩屋古墳, 나카무라 외 2017) 또는 치바현 산무시 다노즈카 고분(千葉縣山武市駄ノ塚古墳, 시라이시 외 1996)에서는 판축 공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다노즈카 고분은 출토한 스에키가 TK209 형식기로 7 세기 초 축조로 생각된다. 즉, 종말기 고분 중에서 판축의 유무를 통해 연대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일본 열도의 키나이와 칸토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고분 축조와 판축 공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지역에 있는 수장묘에서 거대한 절석 횡혈식석실을 도입할 때 사원 건축의 판축 공법이 고분에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전라북도 익산시 쌍릉(羅北道益山市雙陵)에서 판축 공법이 확인되었다(이문형 2019). 익산 쌍릉은 무왕(武王)과 그의 부인 선화(善花) 공주의 무덤으로 생각되나 무왕은 641 년에 봉어하였다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 7 세기 중엽에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판축 공법이 확인된 고분은 익산 쌍릉 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가지 사례만 있을 뿐이다(이동규 2021). 물론 앞으로 다른 지역을 포함한 조사 성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사원 건축이 백제에서 일본 열도로 전래되고, 석실 석재에 응용된 절석 기술이 전해질 때에 고분 축조에 판축 공법을 도입한 것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토목 기술은 빠르게 일본 열도 각지의 수장묘 축조에 도입되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초기 사원의 건립, 각 지역의 절석 횡혈식석실의 성립 시기, 종말기 고분으로의 판축 도입 등을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百済大寺と百済

帝塚山大学
清水 昭博

舒明天皇は同 11 年（639）、百済の地に百済大宮と百済大寺を造営した。百済川のほとりを宮処として、西の民は宮、東の民は寺を造ったという。百済大寺は渡来系氏族の書直県を大匠として造営された。百済川のほとりに九重塔を建てたという（『日本書紀』）。『大安寺伽藍縁起并流記資財帳』は、百済大寺の造営に関して、百済川のほとりに子部社を切りひらいて、九重塔を建て、百済大寺と号したこと、子部社の神の怨みによって九重塔と金堂の石鷗尾が焼破したことを記す。

『大安寺伽藍縁起并流記資財帳』によると、百済大寺は百済川の側、子部社の近傍にあった。百済大寺の候補地について、かつては奈良県北葛城郡広陵町の百済寺周辺とする学説が有力であったが、近年、奈良県桜井市吉備池に所在する吉備池周辺でおこなわれた発掘調査によって巨大な金堂、塔跡が発見された吉備池廃寺を百済大寺とみる説が有力である。

吉備池廃寺を百済大寺とみる根拠は多いが、出土瓦の年代観が百済大寺の創建年代に相応しい、寺跡の南側で百済川と推定される旧流路が確認されている、子部社と関連する「カウベ」や「コヲベ」の地名が残っている、その地が一貫して百済大寺のあった十市郡に属することを大きな根拠としており、吉備池廃寺が百済大寺であることはほぼ間違いないとみられる。

ところで、百済大寺はなぜ百済大寺と命名されたのであろうか。飛鳥寺（元興寺）が飛鳥、斑鳩寺（法隆寺）が斑鳩に建立されているように、百済大寺も同様、百済の地に建立されたからとみてよい。

敏達天皇は百済に百済大井宮を設けており（『日本書紀』敏達元年条）、その頃から百済という地名が存在し、かつ、王権に関わる土地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百済大宮、百済大寺は父祖以来の王権の地に建立されたのである。

加えて、皇極元年（642）に来朝した百済王の子である翹岐が、百済大井家に移り住んでいることも看過できない。同記事から皇極朝の時期にも百済の地が母国・百済と関係の深い土地であったことを想定できるのである。

考古学の立場からは、吉備池廃寺の瓦（単弁蓮華文軒丸瓦や有段式丸瓦）や伽藍（規模や配置）にそれまでの古代寺院にはみられなかった新たな百済的要素をうかがえる点も注目される。

百済の地に建立された百済大寺（吉備池廃寺）は、当時の倭国と百済との強い絆を象徴する存在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쿠다라노오오데라와 백제

테즈카야마 대학
시미즈 아키히로

조메이텐노(舒明天皇, 593~641, 재위 629~641)는 즉위하고 11년이 되는 해(639년)에 쿠다라(百濟) 지역에 쿠다라노오오미야(百濟大宮)와 쿠다라노오오데라(百濟大寺)를 조영하였다. 쿠다라가와(百濟川) 부근을 황제가 머무는 곳으로 하여 서쪽의 백성은 궁을, 동쪽의 백성은 절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쿠다라노오오데라는 도래계 씨족인 후미노아타이아가타(書直縣, 생물년미상)을 오오키타쿠미(大匠)로 하여 조영케 하였다. 쿠다라가와 부근에 구충탑을 세웠다고 한다(『니혼쇼키』). 『자재장(大安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은 쿠다라노오오데라 조영에 관련하여 쿠다라가와 부근에 있던 코베샤(子部社)를 없애고 구충탑을 세워 쿠다라노오오데라로 지은 것과, 코베샤 신의 원한으로 인해 구충탑과 금당의 석기미(石鷄尾)가 불에 타 파손된 사실을 적었다.

『다이안지 가람의 유래와 재산 목록을 기록하여 정부에 제출한 자재장』에 의하면 쿠다라노오오데라는 쿠다라가와 부근의 코베샤 근처에 있었다. 쿠다라노오오데라의 후보지에 대하여 과거에는 나라현 키타카츠라기군 코료초(奈良縣北葛城郡廣陵町)에 있는 쿠다라데라의 주변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나라현 사쿠라이시 키비이케(奈良縣櫻井市吉備池)에 소재하는 키비이케 주변의 발굴 조사에서 거대한 금당과 탑터가 발견되었으므로 키비이케 폐사(吉備池廢寺)를 쿠다라노오오데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키비이케 폐사를 쿠다라노오오데라로 보는 근거는 많다. 출토된 기와의 연대관이 쿠다라노오오데라의 창건연대에 걸맞고, 절터 남쪽 부근에서 쿠다라가와로 추정되는 물길터가 확인되었다. 코베샤와 관련있는 「카우베(カウベ)」와 「코우베(コウベ)」의 지명이 남아있다. 그 지역이 일관되게 쿠다라노타이샤가 있던 토오이치군(十市郡)에 속해있다는 것을 큰 근거로 들고있다. 키비이케 폐사가 쿠다라노오오데라인 것은 거의 틀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쿠다라노오오데라는 어찌하여 쿠다라노오오데라로 명명되었을까. 아스카데라(飛鳥寺, 지금의 간코지)가 아스카 지역에, 이카루가데라(斑鳩寺, 지금의 호류지)가 이카루가 지역에 건립된 것처럼 쿠다라노오오데라도 이와 같이 쿠다라 지역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비다츠텐노(敏達天皇, ?~585, 재위 572~585)는 쿠다라 지역에 쿠다라노오오이미야를 세웠고(『니혼쇼키』비다츠 원년조), 그 무렵부터 쿠다라라는 지명이 존재하여 또한 왕권과 관련있는 토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쿠다라노오오미야, 쿠다라노오오데라는 부계 선조 이래로 왕권의 지역에 건립된 것이다.

또한 코우쿄쿠텐노(皇極天皇, 594~661, 재위 642~645) 즉위 원년(642)에 입조한 백제왕의 아들 교기(翹岐, 생물년미상)이 쿠다라노오오이(百濟大

井) 일족으로 옮겨 살게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기사로부터 코우쿄쿠텐노의 재위기에도 쿠다라 지역이 모국인 백제와 관련이 깊은 토지였음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키비이케 폐사에서 발굴된 기와(단변 연화문 수막새와 유단식 둥근 기와)와 가람(규모와 배치)를 통해 지금까지 고대 사원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백제적 요소를 떠올릴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쿠다라 지역에 건립된 쿠다라노오오데라(키비이케 폐사)는 당시 왜국과 백제와의 강한 인연을 상징하는 존재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参考文献

竹内理三ほか 1961 『日本古代人名辞典 3』 吉川弘文館

花谷浩 2000 「京内廿四寺について」 『研究論集 X I』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平林章仁 2002 『七世紀の古代史－王宮・クラ・寺院』 白水社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吉備池廃寺発掘調査報告書－百済大寺跡の調査－』

百済と日本とに共通する如来像の一着衣形式と金属加飾手法をめぐって

奈良教育大学

山岸公基

韓国忠清南道礼山郡所在の花田里四面石仏（百済、6世紀後半。花田里像と略称）のうち如来坐像、及び全羅北道益山市蓮洞里所在の石仏寺如来坐像（百済、7世紀前半。蓮洞里像と略称）は、左肩を覆う大衣の縁が右肩から肘にかけて表され、その下層に右腋から右胸を覆う衣をつける衣制が共通する。ところで花田里像・蓮洞里像と着衣形式が共通する日本作例として、奈良・法輪寺木造薬師如来坐像、東京国立博物館（法隆寺献納宝物 147 号）銅造如来坐像、同（献納宝物 153 号）銅造如来立像（阿弥陀か）、新潟・医王寺銅造薬師如来坐像、個人蔵（伝鳥取・三仏寺出土）銅造如来坐像（いずれも 7 世紀後半の作と推定）が知られている。上記のうち法隆寺・法輪寺は、670 年の法隆寺火災後に百済の僧（百済出身者を含む）が中心的役割を果たし造営が進められたことが『上宮聖徳太子伝補闕記』（9 世紀）などから知られ、このことを敷衍すれば、上記五作例に百済人、もしくは 660 年の百済滅亡に伴う渡来人が関与したと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

ところで上記五作例のうち献納宝物 153 号像と医王寺像とには、衣文の稜が特殊鑿による複連点文で加飾されるという特徴がある。韓半島においては、忠清南道公州市武寧王陵出土の銅托銀盞〔承台付有蓋鉢。現国立公州博物館保管。百済、武寧王妃が追葬された己酉年（529 年）頃の作か〕が複連点文を有する最古の例であり、かつ既に加飾法として高い完成度を示す（加島勝「武寧王陵金工品と法隆寺献納宝物一承台付有蓋鉢（銅托銀盞）の装飾文様をめぐって一」）。新羅王室建立の慶尚北道慶州市感恩寺出土舍利具（682 年頃）にも複連点文はみられるが、これは日本におけるこの文様の流行と同時期であって、現在知られる作例を通覧すれば、百済で確立した金属加飾手法としての複連点文が、百済の滅亡に伴い（あるいは、それと前後して）新羅にも、日本にも移入されたという想定が自ずと導かれよう。

献納宝物 153 号像や医王寺像は、鼻が短く眉目や人中の間が開く顔立ちや、頭部の大きな身体比例から、毛利久氏によって「童形仏」と呼ばれ、国立慶州博物館弥勒三尊像（三花嶺旧在。古新羅、7 世紀中葉）などとの比較を通じてその祖形を新羅に求めることが行われてきた。しかし同趣の顔立ちや身体比例は国立公州博物館観音菩薩立像（儀堂面西松亭里出土。百済、7 世紀中葉）にも見られ、花田里像・蓮洞里像の衣制との、そして武寧王陵銅托銀盞複連点文との共通性を重視するならば、むしろ源流は百済に求めるのが妥当であろう。

今回は、衣制の共通する百済の作例が複数知られる如来像を中心に発表を行うが、献納宝物 153 号像の場合、様式的に酷似し脇侍菩薩像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銅造観音菩薩立像（献納宝物 179 号）・銅造菩薩立像（献納宝物 188 号。勢至か）があり、医王寺像の場合は法隆寺銅造観音菩薩立像（伝金堂薬師如来脇侍）と作風が酷似している。しかもこれら如来像と密接に関連する菩薩像に、やはり複連点文の使用が確認できるのであり、7 世紀後半の日本造像界に百済が与えた影響がきわめて広範に及んだことを、あらためて痛感する。

백제와 일본 여래상의 공통된 착의형식과 금속가공법에 대하여

나라교육대학
야마기시 코우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화전리석불의 여래좌상(백제, 6세기 후반)과 전북익산 연동리의 석불사여래좌상(백제 7세기 전반, 이하 연동리석불)은, 왼쪽외개를 감싸는 대의 끝이,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표현되며, 그 밑에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가슴을 덮는 옷을 입은 점이 공통된다. 그런데 화전리석불, 연동리석불과 착의형식이 공통되는 일본의 불상이 있다. 나라의 법륜사(法輪寺) 목조약사여래좌상(木造藥師如來坐像)과 동경국립박물관의 법륜사헌납보물(法隆寺獻納寶物) 147 호인 동조여래좌상(銅造如來坐像)과, 헌납보물 153 호인 동조여래좌상(아미타?), 니이가타현(新潟縣)의 의왕사(醫王寺) 동조약사여래좌상, 개인소장의(전 토토리현鳥取縣 삼불사三佛寺출토) 동조여래좌상이 그것이며, 모두 7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 중 법륜사와 법륜사는 670년의 법륜사화재 후에 백제의 승려(백제출신을 포함한)가 중심적 역할을 하여 재건한 것이 『上宮聖德太子伝補闕記』(9세기)등이 알려져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위의 5개의 불상은 백제인, 혹은 660년의 백제멸망에 따른 도래인이 관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다섯개의 불상중 헌납보물 153 호상과 의왕사(醫王寺)상에는 옷주름에 특수한 끝(도구)로 점선(複連點紋)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에서는 충남 공주 무령왕릉출토의 동탁은잔(잔받침과 뚜껑이 있음.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무령왕비가 합장된 을유년 529년작으로 추정)에 보이는 점선문이 가장 오래된 예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지적된다(加島勝「武寧王陵金工品と法隆寺獻納寶物—承台付有蓋鉢(銅托銀蓋)の裝飾文様をめぐって—」 카지마 마사루「무령왕릉 금속공예품과 법륜사 헌납보물 -잔받침이 있는 은제탁잔의 장식문양에 대하여-」). 신라 왕실 건립의 경북 경주의 감은사지(感恩寺址) 출토의 사리기(682년)에도 이러한 점선이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에서도 같은 문양이 유행하는 시기와 같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백제가 확립한 금속가공 수법인 점선문(點線紋)이 백제의 멸망(혹은 그를 전후하여)과 더불어 신라와 일본에도 전파되었다는 점을 자연스레 상정할 수 있다.

헌납보물 153 호상이나 의왕사상은, 코가 짧고 눈썹과 눈, 인중이 넓은 생김새나 머리가 큰 신체비율로부터, 모리(毛利)씨가 말한 동안(童顔)형의 불상으로 불린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미륵삼존상(彌勒三尊像, 일명 삼화령三花嶺불상, 고신라 7세기 중엽) 등과 비교하여 그 원점을 신라에서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김새나 신체비율이 국립공주박물관의 관음보살입상(觀音菩薩立像, 공주 의당면 송정리출토. 백제 7세기 중엽)에도 보여, 화전리석불이나 연동리석불 및 무령왕릉 은제탁잔에서 보이는

점선문과의 공통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원류는 백제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에는 착의형식이 같은 백제의 작품에서 몇 점 보이는 불상을 중심으로 발표하지만, 헌납보물 153 호상의 경우, 양식적으로 거의 일치하면서 협시보살상(夾侍菩薩像)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동조관음보살상(銅造觀音菩薩像, 헌납보물 179 호), 동조보살입상(銅造菩薩立像, 헌납보물 188 호. 세지보살?)이 있다. 의왕사상의 경우는 법륜사 동조관음보살입상(전 금당약사여래협시金堂藥師如來夾侍)과 상당히 비슷하다. 더구나 이러한 여래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살상에서도 같은 점선문이 보이는 것은 7 세기 후반의 일본 불상제작에 백제가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새롭게 통감한다.

天寿国繡帳と三国時代の韓半島

帝塚山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徐 玉茜

奈良中宮寺が所蔵する天寿国繡帳残闕（国宝）は、飛鳥時代に制作された日本最古の刺繍作品である。銘文によると、推古天皇 30 年（622）2 月に聖徳太子が薨去後、妃の橘大郎女が発願し、天皇の命を受けて、棕部秦久麻の指揮で、東漢末賢、高麗加西湓、漢奴加己利の三人が下図を描き、采女たちが「繡帷二帳」を刺繍したことがわかる。本発表では、彼ら渡来系の絵師たちが属する系譜について略述した上で、彼らが画面に配置した図像と三国時代の韓半島との関係について論じる。

四人の工人の名前を見ると、秦氏、漢氏、高麗氏と、いずれも有名な渡来系氏族に属することがわかる。それぞれ新羅系、百済・加耶系、高句麗系とみるならば、天寿国繡帳の下図製作にあたった四人はいずれも韓半島に出自をもつ事実が導かれる。彼ら渡来人たちが継承していた技術や文化は、天寿国繡帳を成立させる大きな前提をなしたに違いない。現存の画面には仏教関係の図像以外に、鳳凰・亀・月像のように神仙思想とかわるものがみられる。その中でも、兎・桂樹・薬瓶をとまなう月像が注目される。

韓半島を中心に、月像の伝播の様相をみていきたい。中国戦国時代末の『楚辞』には月・兎・蟾蜍の組み合わせが確認でき、前漢時代になるとこれらが月を象徴する意匠として墓葬美術にあらわれた。後漢時代には完備した神話が成立し、羿・姮娥（嫦娥）などの人物が登場、不死の薬・桂樹などの意匠もあらわれる。これらの要素の配置は一定の程度で時代性、地域性の指標になると考える。韓半島に目を移すと、楽浪郡に属し、後に高句麗に併合された地域に月像の出土例が集中している（朝鮮平壤と中国吉林省集安周辺）。平壤石巖里 219 号墳（紀元前 1 世紀後半）出土の漆矢筒透文飾金具はその最古例で、上方には走る兎を側面像で、下方には同じ向きの蟾蜍を俯瞰像で配している。このような組み合わせと配置は中国陝西省甘泉宮遺跡出土の蟾蜍玉兎図案飾瓦当のそれと極めて類似している。甘泉宮の造営は秦漢時代であり、楽浪郡が存在していた期間とは矛盾しない。つまり、月像は当時政治の中心であった陝西地域から、管下の楽浪郡に流入し、高句麗に残されたと推測できるであろう。なお山東省孝堂山武氏祠出土画像磚の存在から、同様の月像は後漢時代までに、陝西地域だけでなく、山東地域にも広がったことが知られる。そして天寿国繡帳の月像のように、薬を搗く兎と桂樹を左右に配置する例は、中国では江蘇省丹陽県建山金家村墓出土画像磚（5 世紀）、山東省祥英山 1 号墓壁画（584 年）に知られ、韓半島では高句麗内里 1 号墳壁画（6 世紀後半）に見出すことができる。

以上のように、月像の伝播を紀元前の中国から三国時代の韓半島まで追跡することにより、天寿国繡帳の画面内容の成立を新たに照明できると考える。

参考文献

郑洪春・姚生民「汉甘泉宫遗址调查」『人文杂志』1980 年 1 期 陝西省社会科学院

1980

西川明彦「日像・月像の変遷」『正倉院年報』16号 1994

大橋一章『天寿国繡帳の研究』 吉川弘文館 1995

東野治之校注『上宮聖徳法王帝説』 岩波書店 2013

吉村武彦・吉川真司・川尻秋生編『シリーズ 古代史をひらく 渡来系移住民一半
島・大陸との往来』 岩波書店 2020

천수국수장과 삼국시대의 한반도

테즈카야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서 옥천

나라 중궁사(中宮寺)가 소장한 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 국보)은, 아스카시대에 제작된 일본최고의 자수(刺繡)작품이다. 명문에 의하면 추고천황 30년(622) 2월에 성덕태자 서거후, 그 비인 타치바나노 오오이라츠메(橘大郎女)가 발원하고 천황의 명을 받아, 쿠라베노하타노쿠마(棕部秦久麻)의 지휘로, 동한말현(東漢末賢)과 고려가서익(高麗歌西溢), 한노가기리(漢奴加己利)의 세명이 밑그림을 그린 후, 궁중의 여관들이 2장의 자수를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도래계의 화공들이 속한 계보에 대해 약술한 뒤, 그들의 작품에 배치한 도상과 삼국시대의 한반도와 관계에 대해 논하려 한다.

화공들(밑그림 제작자)의 이름을 보면 진(秦)씨, 한(漢)씨, 고려(高麗)씨로 모두가 유명한 도래계씨족에 속한다. 각자 신라계, 백제와 가야계, 고려계로 본다면 천수국수장의 밑그림을 제작한 사람은 모두 한반도에서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도래인들이 계승했던 기술과 문화로, 천수국수장을 완성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현재의 이 작품에는 불교관계의 도상(圖像)외에 봉황, 거북, 월상(달)과 같은 신선사상과 관련된 것도 보인다. 그 중 토끼와 계수나무, 약병이 들어간 달 모양이 주목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달모양의 전개와 양상을 살펴보자. 중국 전국시대말의 『楚辭』에는 달과 토끼 두꺼비를 섞은 모양이 확인되고, 전한(前漢)시대가 되면 이들이 달을 상징하는 의장으로 분묘(매장)미술에 등장한다. 후한(後漢)시대에는 완비된 신화가 성립하고, 예(羿)와 항아(姮娥, 嫦娥) 등의 인물이 나오고, 불사(不死)의 약과 계수나무 등의 의장도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의 배치는 일정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낙랑군에 속하여 후에 고구려에 병합된 지역에(평양과 중국 길림성집안 주변) 월상(달)의 출토 사례가 집중된다. 평양석암리(石巖里) 219 호분(기원전 1세기후반)출토의 칠제화살통(투각금구)은 그 최고 예로서 윗부분에 달리는 토끼를 측면상으로 그리고 아래에는 같은 방향의 두꺼비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조합과 배치는 중국 섬서성(陝西省) 감천궁(甘泉宮)유적 출토의 두꺼비와 토끼로 장식한 기와와 상당히 유사하다. 감천궁의 조영은 진한(秦漢)시대이며 낙랑군이 존재했던 시기와도 같다. 즉, 월상(달)은 당시 정치의 중심이었던 섬서성지역에서 관장하던 낙랑군에 유입되어 고구려에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둥성(山東省) 효당산무씨사당(孝堂武氏祠) 출토의 화상전돌(畫像磚)의 존재를 생각하면 같은 모양의 월상이 후한시대까지 섬서지역 뿐만 아니라 산둥지역에도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수국수장의 월상처럼 약을 빵는 토끼와 계수나무를 좌우에 배치한 예는 중국에서는 강소성(江蘇省) 단양현(丹陽縣) 건산금가촌묘(建山金家村墓) 출토의 화상전(5세기), 산둥성 상영산(祥英山)1호묘의 벽화(584년)등이 알려져 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내리(內里) 1호분 벽화(6세기 후반)에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월상의 전파를, 기원전 중국에서 한반도의 삼국시대까지 추적함으로써, 천수국수장의 내용이 성립했음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郑洪春·姚生民「汉甘泉宫遗址调查」『人文杂志』1980年1期 陕西省社会科学院 1980
- 西川明彦「日像・月像の変遷」『正倉院年報』16号 1994
- 大橋一章『天寿国繡帳の研究』 吉川弘文館 1995
- 東野治之校注『上宮聖徳法王帝説』 岩波書店 2013
- 吉村武彦・吉川真司・川尻秋生編『シリーズ 古代史をひらく 渡来系移住民一半 島・大陸との往来』 岩波書店 2020

瓦からみた百済系氏族建立寺院の諸相―大和片岡地域を中心に―

帝塚山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博士前期課程 1 年

奥田 利伽

奈良県北西部にある王寺町や香芝市周辺はかつて片岡と呼ばれていた。この地域には大和川が流れており、大和から河内、大陸へと繋がる、外交の入口として重要であった。そして片岡には百済系の渡来系氏族が建立したとされる古代寺院がいくつか所在する。今回の発表では瓦からみた百済系氏族建立寺院の諸相について大和片岡地域を中心に検討していく。

大和片岡地域にはいくつかの古代寺院が存在している。代表的な寺院としては片岡王寺や西安寺、尼寺廃寺があげられる。片岡王寺は、法隆寺所蔵の銅板造像記の記載から百済王氏の一族である大原氏の氏寺とする説がある。西安寺は所在地が『大和国大原吉宗田地売券』により、かつては大原吉宗の先祖が相伝してきた土地とされている。また、片岡王寺の南方に位置する尼寺廃寺は、敏達天皇系の茅渟王一族の創建とする説が有力だが、出土瓦から渡来系氏族との繋がりも考えられている。

今回の発表では上記の中から西安寺に着目する。西安寺は舟戸神社の境内に位置し、これまでの調査で 7 世紀前半に造営が開始され、7 世紀後半に本格的な伽藍として整備され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西安寺は久度寺とも呼ばれており、同じ久度の名をもつ久度神社も近在する。久度神社の祭神の 1 つである久度神は渡来系氏族が奉斎するものであるため、百済系の渡来系氏族である大原史が建立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西安寺から出土する瓦には片岡王寺と同文の素弁八弁蓮華文軒丸瓦、法隆寺若草伽藍と同範の素弁八弁蓮華文軒丸瓦など、片岡や斑鳩といった周辺地域の古代寺院との繋がり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しかし、出土瓦からは直接的な百済との関係はみられない。

一方、瓦から百済との繋がりをみることができる古代寺院の例としては、飛鳥にある坂田寺があげられる。坂田寺は『扶桑略記』欽明 13(552)年 10 月条から、渡来系氏族である司馬達等が草堂を営み、本尊を安置したことが創建の始まりとされている。坂田寺から出土した瓦の中に坂田寺式と称される素弁形式の軒丸瓦がある。坂田寺式は蓮弁の先端が強く反転しており、楔形の間弁をもつ。丸瓦の先端を片はぞ状に加工して接合する。坂田寺の瓦は文様的には百済金剛寺の瓦とよく似ており、また、技法的にも百済との直接的な関係がうかがえる。

大和片岡地域の古代寺院は史料面では百済系氏族が建立した寺院というような様子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が、出土瓦では百済との繋がりよりも周辺地域との繋がりが強くみられる。対照的に坂田寺のように出土瓦から百済の繋がりをうかがえる例もある。以上のことから渡来系氏族が建立したとされる寺院の在り方も多様であ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参考文献

- 大脇潔 1994 「飛鳥時代初期の同範軒丸瓦―蘇我氏の寺を中心として―」『古代』第 97 号、早稲田大学考古学会
- 近江俊秀 1997 「大和の古墳と寺院」『季刊考古学』第 60 号、雄山閣
- 王寺町史編集委員会 2000 『新訂 王寺町史 本文編』王寺町
- 花谷浩 2000 「京内廿四寺について」『研究論集XI』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 香芝市二上山博物館 2019 『聖徳太子と古代王家―片岡・広瀬地域の開発―』
- 王寺町 2022 『西安寺跡第 10 次発掘調査報告書』

기와로 본 백제계씨족 건립사원의 양상 -야마토 카타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테즈카야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석사과정

오쿠다 키쿠카

나라현 서북부의 오우지쵸(王寺町)나 카시바시(香芝市) 주변은 일찍이 카타오카(片岡)로 불렸다. 이 지역은 야마토천(大和川)이 흐르고, 야마토에서 오사카 남부의 카와치(河内), 대륙으로 연결되는 외교의 입구로서 중요했다. 그리고 카타오카에는 백제계 도래씨족이 건립했다고 하는 고대사원이 몇 개 존재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와로 본 백제씨족 건립사원의 양상에 대해 야마토카타오카(大和片岡)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야마토 카타오카에는 몇개의 고대사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절로는 카타오카 왕사(片岡王寺)나 서안사(西安寺), 니사(尼寺)폐사(지)등이 존재한다. 카타오카왕사(片岡王寺)는 법룡사(法隆寺) 소장의 동판조상기(銅板造像記)의 기록에서 백제 왕씨의 일족인 오오하라(大原)씨의 절로 보는 설이 있다. 서안사는 소재지가 『大和国大原吉宗田地売券』으로부터 일찍이 오오하라노 요시무네(大原吉宗)의 선조가 있던 토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타오카 왕사의 남쪽에 위치한 니사 폐사지는 민달천황계(敏達天皇系)의 모정왕(茅渟王) 일족의 창건으로 보는 설이 유력한데, 출토 기와에서 도래계 씨족과의 관련도 생각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상기 중에서도 서안사(西安寺)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안사는 후나토신사(舟戸神社)의 경내에 위치하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로 7 세기 전반에 조영되어, 7 세기 후반에 본격적인 가람으로서 정비되었다고 본다. 서안사는 구도사(久度寺)라고도 불리며, 같은 구도의 이름을 가지는 구도신사(久度神社)의 위치에 가깝다. 구도신사 축제의 신인 구도신은 도래계씨족을 모시는 것으로 백제계 도래씨족인 오오하라(大原)가 건립했을 가능성도 생각된다.

서안사에서 출토한 기와 중에는 카타오카 왕사와 같은 모양의 팔엽연화문(八弁蓮華文)수키와, 법룡사 와카쿠사(若草) 가람과 같은 기와틀로 만든 팔엽연화문수키와 등, 카타오카나 이카루가(斑鳩)와 같은 주변지역의 고대사원과의 관계를 짐작케한다. 하지만, 출토된 기와만으로는 백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기와로 알 수 있는 백제와의 관련성이 엿보이는 고대사원 중에 아스카지역(飛鳥)에 있는 사카타데라(坂田寺)를 들 수 있다. 이 절은 『扶桑略記』 흠명(欽明)천황 13 년(552) 10 월조에서, 도래계씨족인 사마달(司馬達) 등이 초당을 짓고 본존을 안치한 것에서 창건의 시작으로 본다. 사카타데라에서 출토한 기와에는 사카타데라식으로 불리는 무문연화문 수키와가 있다. 사카타데라식은 연잎 끝이 크게 말려 올라가고, 췌기형의 간변(연화문의 사이 잎)이 있다. 수키와의 끝을 따로 제작 가공하여 접합한다. 사카타데라 기와는 문양적으로는 백제 금강사(金剛寺) 기와와 비슷하고, 기술적으로도 백제와의 직접적 관계가 보인다.

야마토카타오카 지역의 고대사원은 문헌상으로는 백제 씨족이 건립한 사원이라는 측면이 보이지만, 출토 기와에서는 그 보다 주변지역과의 관계가 깊어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카타데라와 같은 기와에서는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도 있다. 이로 부터 도래씨족이 건립한 것으로 보는 절의 양상은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大脇潔 1994 「飛鳥時代初期の同範軒丸瓦—蘇我氏の寺を中心として—」『古代』第97号、
早稲田大学考古学会
- 近江俊秀 1997 「大和の古墳と寺院」『季刊考古学』第60号、雄山閣
- 王寺町史編集委員会 2000 『新訂 王寺町史 本文編』王寺町
- 花谷浩 2000 「京内廿四寺について」『研究論集XI』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 香芝市二上山博物館 2019 『聖徳太子と古代王家—片岡・広瀬地域の開発—』
- 王寺町 2022 『西安寺跡第10次発掘調査報告書』